제 446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00년 7월 30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전1:1)

⊗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 행 인:이 종 윤 발 행 처: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9월 6일(수)~8일(금)-

우리교회 설립이후 10번째 열리는 열린바자가 오는 9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이번 바자의 목표액은 10억원으로 온 교회가 건축의 마지막을 위해 정성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번 바자를 통해 서울교회 성도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소장품을 비롯하여 동산, 부동산 등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온 성도가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표를 삼았다. 또한 우리 교회와 자매 관계를 맺은 농어촌 교회와 농수산품을 직거래함으로 농촌교회 성도들과 유대를 강화함으로 복음사역에 유익을 주며 기업을 경영하는 성도가 자기회사 제품을 기증하므로 물품선전의 효과를 얻어 성도간에 유통통로를 넓히고 이웃주민들로 하여금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여 복음전도에 유익을 주기위한 것이다.

상품화 할 수 있는 모든것을 기증품으로 받게 될 이번 바자의 목표액을 교구별로 배정하고 각 교구 가족들은 이를 위해 진력하기로 하였다.

◈ 바자회 준비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대회장:이종윤목사, 고문:이응선장로 · 이남호장로, 감사:오정수장로, 위원장:임광식장로, 집행위원장:박철훈장로, 서기:김광신장로, 회계:노문환장로

(단위:만원)

교 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타
목 표 액	1억2천	1억	1억5천	1억3천	6천	4천	6천	5천	5천	3천	6천	8천	7천
사 장	하영수	황정욱	정병무	임훈규	민순구	노송성	이영기	서문석	윤봉준	최종시	왕경래	이번생	최학인, 김사무엘
영업부장	정동호	최홍렬	윤성남	최차순	탁경준	박성헌	이상호	김광욱	이동만	김성준	이우상	김관홍	송인권, 조철기
총무부장	김인숙	이자혁	최일춘	박미혜	박영옥	김정란	진경옥	김정운	최영란	한명순	김혜영	나기태	이해순, 신동기

9월 3일 건축헌금 작정한다

-재산의 십일조를 드리기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신축중에 있는 새 예배당 건축기금을 조성하기위하여 특별 건축헌금을 9월 3일(주일) Ⅰ, Ⅱ, Ⅲ부 예배시 드리기로 하였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위해 재산의 십일조를 바치자는 당회원들의 소청에 따라 우리교회 성도들은 이번기회에 하나님께 큰 헌신을 다짐하게 될 것이다. 내 소유중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바자와 건축을 위한 특별헌금에 큰 헌신이 있도록 한다.

◈ 8월 행사계획표

날 짜	행 사
7. 31 ~ 8. 3	• 청년부 수련회
8. 6	• 정기제직회, 교육위원회
8. 8 ~ 8. 11	• 농촌 전도 봉사 활동 - 경북 예천 상리
8. 6	• 학습자 교육
8. 13 ~ 8. 14	• 학습(추가), 세례교육
8. 13	• 전도위원회
8. 15	• 당회원 수련회
8. 15	• 학습, 세례문답
8. 16	• 학습, 세례식
8. 27	• 새가족 환영

협동장로 임명

1대 장로님들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안식년에 들어감에 따라 당회원수가 절대 부족함으로 당회는 김사무엘 장로(11교구)와 최학인 장로(5교구)를 각각 7월 23일자로 협동장로로 임명하였다.

❖ 김사무엘 장로 11교구

- 생년월일:1932년 3월 23일생
- 안수받은 교회 및 년도: 수유동교회(예장통합), 77년도 안수

❖ 최학인 장로 5교구

- 생년월일:1946년 1월 17일생
- 안수받은 교회 및 년도: 우림장로교회(예장통합), 86년도 안수

— * —

문형숙 선교사 일시 귀국

문형숙 선교사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신학교 방학기간동안 지난 22일 일시 귀국했다.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선교보고를 한다.

이사야강해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

성경 : 이사야 37장 21~29절

이종윤 목사

***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12~35). 이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한 응답(6~7)과 같으나 앞에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21~29절은 산헤립이 패퇴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30 ~32절은 예루살렘이 재건 될 것이라는 것이며, 33~35절은 그같은 사실이 재확인 됩니다.

1. 환난날에 기도와 인내로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긴 응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말이 아닌 문서로 적어 사람을 보냈습니다(21). 이사야가 전달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말처럼 반가운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이미 예언한 말씀들(특히 10장)을 참조케 하고 거기서 답을 뽑아내도록 지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히스기야가 풍성한 위로를 얻게 하려고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보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교통은 결코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십니다. 기도 응답은 때로 부정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스스로 경멸하는 자다

'처녀의 딸 시온'이 산헤립을, 그리고 그의 무기력한 악의와 위협을 멸시했습니다(22절). 처녀의 딸 시온은 예루살렘의 애칭입니다. 산헤립이 예루살렘에서 패하여 퇴각할 때 그의 뒷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산헤립을 멸시 조소했습니다.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도 조소하는 몸짓입니다. 산헤립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조소와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23절). 그가 여호와를 비방하고 조소했기 때문에 그도 예루살렘 거민들로부터 비방과 조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종을 통해서 내 주를 훼방하여"(24절). 산헤립은 주를 천한 사람으로 훼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조소와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방하나 징벌을 받게 된다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25절). 산헤립은 스스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고 했고, 뛰어난 업적을 행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든지 제 힘으로 정복하는 줄로 알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사막지대에서는 군대를 투입하여 우물을 파서 마셨고 강을 만나면 그의 발바닥으로 그 하수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만한 태도로 산헤립은 자기를 자랑하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했습니다.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26절).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상으로 행할 수 없으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는 옛부터 그가 계획하셨던 것 이상의 상태로 그들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28절).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기저기서 날렵하게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행방을 다 알고 계셨고 항상 그를 주시하셨습니다. 앗수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징벌하시기 위하여 그 나라 왕 산헤립을 갈고리로 코를 꿰어 자갈을 그 입에 먹여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29절). 교만한 자의 말로는 언제나 이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헤립을 보내어 유다를 때리라고 명하셨습니다(사 10:6). 그러나 여기서는 그의 임무를 박탈하십니다. 산헤립은 그들을 놀라게는 해도 상하게 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한 산헤립은 더 이상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주었던 권세를 거두시고 그를 해고하셨습니다. 산헤립은 그가 받은 직권 이외의 것을 행한 것에 대한 댓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하면 하늘이 아무리 멀어도 기도의 채널이 하나님께로 가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습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불어와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끝가지 견디면서 승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름·수·련·회·를·마·치·고

소망부

"할미꽃, 할배꽃"

(소망부 교사 / 권윤경 집사)

소망부는 70세 이상의 성도님들이 모이는 부서이다.

하얀 머리를 흩날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로 모이시는 소망부를 난 너무 사랑한다. 7월 15일에 시작된 여름수련회는 선생님들의 기도로 준비된 수련회를 통해 소망부에 속한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힘찬 출발이었다. 10시에 이종윤 목사님의 개회예배 설교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다.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있는 38년된 병자가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38년된 병자가 별견되어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발견되어져 변할 수 없는 나에서 변할 수 있는 내가 되어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이웃에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자는 말씀을 하셨다. 노인이라는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의 목적이나 의미, 방향을 변화된 자로 살아가는 소망부가 되길 축복하셨다.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진 찬양과 기도시간에 변할 수 없는 나로 살아왔던 세월들을 회개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점심식사후 오후시간에 이어진 특강은 이재윤 집사님의 "난" 재배법이었는데 난 처럼 우리도 주님의 참 사랑과 정성스런 보살핌속에서 살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명숙 권사님의 "노인과 인간관계"라는 제목의 특강은 노인의 고집과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었는데 모두가 동감하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생각을 하는 소인이 될 것을 다짐했다.

와! 드디어 게임시간이다. 박수치기게임, 풍선 터뜨리고 밀가루 사탕먹기, 등등 신나고 즐거웠다. 특히 만리장성 쌓기에서는 소망부 모두가 자기것을 내어놓아 만리장성을 만드는 게임이었는데 자기 것을 다 주어서 만리장성을 완성하는 모습은 마치 지금 저축하고 있는 서울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왜 소망부를 이토록 사랑하는지 나도 알 수 없지만 이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난 "할미꽃, 할배꽃"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많이 울고 많이 웃고, 많이 사랑을 나누었던 수련회였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서 받은 은혜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내고싶은 심정으로

이번 여름성경학교 동안 느낀 점은 죄 많고 별것도 아닌,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 그 귀한몸을 버리셨다.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왔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심정으로 바르게 사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겠다. 오호준

소망과 믿음이 영원하길…

소망을 외쳐 봤지만 한번도 진정으로 느껴 본 적이 없었던 나에게 소망의 참뜻을 알게했고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 아이들과 협동을 배워가며 보람을 느끼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이 언제나 영원하기를 기도한다. 김보연

부모님께 감사를

촛불을 켜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여태까지 부모님께 속만 썩이고 해 드린 것이 없는데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이제부터는 부모님말씀 잘 듣고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것이다. 박보라

제일 친한 친구를 미워했음을…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힘이 들기도 했지만 재미도 있었고 감명 깊기도 했습니다. 캠프파이어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성적도 좋고 운동도 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좋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찬희

탈북 소년들이 고통과 굶주림에

이번 여름성경학교처럼 감명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아이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탈북 소년들이 고통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모습에 우리가 너무 사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요한

고등부

「죽음 체험」을 말한다

관속에 누웠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찬송은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도장이었다. 이렇게 허무한 것인데 살았을때 왜그리도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다. 사랑해 주고 살았어야 했는데…. 3학년 김재연

관속에 누워있다. 그래서 나는 죽은것이다. 그러나 천국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 있고 싶은 마음뿐이다. 1학년 오주명

처음엔 그냥 장난같이 느꼈으나 진짜로 관속에 들어가고 뚜껑이 닫히고 못을 박고 환송하고 찬송소리가 들리면서 진짜 죽어가는구나 생각되면서 말씀대로 듣고 부모에게 효도하여 전도도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내가 되고싶다. 임규연

빛줄기 하나없는 컴컴한 좁은 공간에 5분정도 밖에 않았었는데 정말 죽은 기분이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이 정말 있어야겠다. 허미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실제로 관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느끼게 되었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김정연

■동정■

- 김금준 집사는 국민은행 차장으로 승진, 청담북지점으로 발령
- 송인권집사, 조철기 집사, 이강인 집사는 교회 사무전산화를 위한 부족한 컴퓨터를 교역자실과 사무국에 기증하다.
- 김선일 집사(임마누엘 지휘) 8/5~14까지 중국 및 홍콩의 여러 교회에서 서울대 음대 찬양선교단 지휘 및 독창한다.
- 개업 : 임선철 집사(3교구 역삼) 개인택시업을 개업하다. (018-213-0480)
- 개업 : 김 현, 문선애 성도(2교구) 반포 강남고속터미널 지하1층 Dairy Queen아이스크림점 개업하다.(6282-1090)
- 이사 : 김복희 집사 김방현 집사 대치동 쌍용아파트로
- 이사 : 김원중 집사, 이갑연 집사 논현동으로

✉ 편지왔습니다

"한 몸된 지체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리 교회 천광훈 전도사)

제가 시무하고 있는 곳은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끝부분에 위치한 산 중턱의 작은 마을입니다. 불교의 영향력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에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산골에 부족한 저를 보내주셔서 7년 동안 시무하면서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전도에 힘쓰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농촌 교회의 어려움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 상리교회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지만 서울에 있는 서울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의 고통에 동참하는 지체가 되실것을 선언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시고 있으므로 상리교회로서는 얼마나 힘이되고 격려가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울교회와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며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굳게 서 있도록 계속 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번 여름 기간중 우리교회를 위한 농촌전도단을 구성하여 파송해 주신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천사의 소식을 듣는 감격을 느꼈고 더 많은 기도와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상숭배로 가득찬 농촌지역에 순수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을 열게 되어서 무엇이라 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교회에서 준비하신 프로그램을 전해 듣고 저희는 더욱 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대원 모든 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 성령 충만하여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악령의 역사는 물러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상리마을이 되기를 말입니다. 그리하여 손과 발이 한 몸의 지체이듯이 그리스도안에서 서울교회와 상리교회가 거룩한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당회장님을 비롯한 당회원 여러분과 성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계속 기도 할 것을 약속합니다.

거울에 비친얼굴

(이종혁 집사, 4교구)

박물관에서 거울을 발견하고 그 오래됨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청동제일지언정 그때나 지금이나 보통 사람에겐 그 필요성이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지경 같은 거울이 아니라면, 거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을 바라보는 것은 이모저모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제 정든 교회가 있는 서울을 떠나 다른 먼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거울만큼은 꼭챙겨넣었습니다. 고급품 반열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왠지 늘 보던 거울이면 편안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손꼽아보니 서울교회에 출석한 지는, 10년까지는 많이 못미치지만, 그런대로 꽤나 됐나 봅니다. 그동안 조용히 다니기도 했고, 등록한 후로는 미약하나마 작은 일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식구도 두 사람이나 느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또 그런 만큼 빚도 늘었습니다. 부족함을 절실히 느낀 것이 서울교회였고 그 모자람을 주위 성도님들이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빚은 아마도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갚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비록 이 땅이 대형 참사가 잇따라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공직을 맡아도 자기 밥그릇만 넘치면 그만이고, 다수를 따르지 않으면 재미없을 거라고 하는 사회라고 해도 그리 놀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랑 하나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저리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니 머리칼이 덮는 부분보다 얼굴이 전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제 옛 얼굴은 그렇다 해도 집사람을 도와 화장을 해왔던 순례자의 얼굴이 불과 한주새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에 갔다가 돌아와서 바로 찾아본 게 순례자였습니다. 이리 저리 돌려도 보고 종이의 촉감도 느껴 봤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땀과 생각이 밴 우리 교회 순례자는 이사를 가서도 꼭 보고 싶습니다. 거기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의 얼굴이 한 분도 남김없이 담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이중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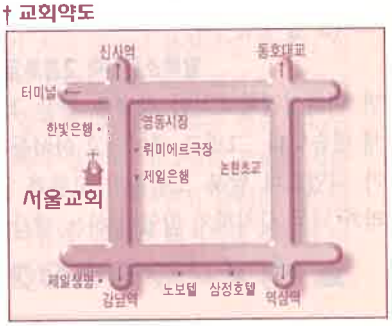
- **농촌 봉사대원 교육** : Ⅲ부 예배후(3:30) 1층 예배실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이종혁 집사 · 박은경 집사 가정
- **건축현장 방문팀** : 스데반-31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를 위해
2.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
3. 농어촌전도대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Ⅰ부	오전 9시
	Ⅱ부	오전 11시
	Ⅲ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Ⅰ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회약도